



신덕룡 교수



사람의 운명이란 뜻밖의 곳에서
길을 잃고 뒤틀리기도 하지 ...
이젠 내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멜 동상

시로 엮은 이방인의恨 '하멜 서신'

신덕룡 광주대 교수 신작 시집
조선에서의 고통·절망·그리움...
하멜을 화자로 60여편에 담아

강진 병영의 '하멜기념관' 앞에는 서양인의 동상이 서 있다. 중절모를 쓴 건장한 남자가 한손은 책을 들고 다른 한손은 가까운 방향을 지시한다. 정형화된 어느 동상과는 다른 포즈는 이색적인 아우라를 발한다.

하멜기념관은 강진군이 지난 2007년, 500여 년 전 태풍으로 떠밀려왔던 하멜(1630~1692)이라는 서양인을 위해 건립했다. 타원형의 전시관은 하멜이 상륙했던 섬을 상징한다. 맞은편 사각형 건물은 당시 풍랑으로 망망대해에 표류했던 스페르베르호(하멜상선)를 본뵈었다.

하멜은 네덜란드 출신으로 동인도 회사에 소속돼 선박의 서기로 일했던 인물이다. 1653년 대만을 떠나 나가사키로 가던 중 태풍을 만나 표류했다. 조선에 들어와 노예와 비슷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세계 속에 조선을 알린 인물이다. '하멜표류기'는 서양인의 눈으로 본 최초 조선의 문화

보고서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이방인 '하멜'을 모든 시편의 발신자로 한 시집이 발간돼 화제다. 시인인 광주대 문예창작과 신덕룡 교수가 펴낸 네 번째 시집 '하멜서신'(천년의 시작)은 하멜이라는 단일 화자가 주인공이다.

지난 2013년 펴낸 세 번째 시집 '아름다운 도둑' 이후 3년 만에 펴낸 시집에는 시인의 내면적 정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적 행로가 내재돼 있다. 이번 시집에는 '하멜서신'이라는 부제가 모든 시에 달려있듯, 시인은 조선이라는 낯선 땅에 표류한 하멜에 자신을 온전히 투영하고 있다. 60편의 시는 특정 화자를 한 권의 작품집으로 확장한 이색적인 사례를 넘어 시인의 삶의 '이력'으로 다가온다.

각각의 시들은 기본적으로 하멜의 자료를 기초로 형상화돼 있다. 조선에 체류하던 기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기록들을 모티프 삼아, 시인은 하멜의 삶을 산 것 같다. 달리 말하면 '하멜되기'를 꿈꾸며 한 이방인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았다.

신 교수는 "병영에서 만난 그는 눈을 맞으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유배 아닌 유배로 이곳에서 칠년을 살았다"며 "이제는

내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표정이었다"고 시집 발간 의미를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역울함과 분노, 고통과 절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그의 눈빛이 묵숨에 스며들었다. 낯익은 슬픔이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방인으로서 내던져진 삶, 다시 말해 생의 비극성에 초점을 맞춘다. 외부자의 시선으로 다수의 '이방인'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도 짐 지워진 동일한 운명에 다름 아니다.

"따지고 보면 사람의 운명이란/ 뜻밖의 곳에서/ 전혀 뜻밖의 사고로/ 뒤틀리거나 길을 잃기도 하는 것이어서// 밤새 끄덕 앞으며 고향으로 가는 절룩임 또한/ 제 짐을 지고 끌면서/ 앞으로 앞으로만 힘차게 노를 젓는 일이라." ('잡꼬대' 중에서)

'하멜서신'은 문학 외에도 사료적 가치로서의 의미도 던져준다. 당대의 사회와 문화, 풍습 등을 서양인이라는 타자의 시선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17세기 인물을 화자로 내세워 과거와 현재를 역동적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문학평론가 김문주 영남대 교수는 "이

시집이 구상되고 한 편 한 편이 진행되어 하나의 세계로 완결되기까지 시인은 '하멜'의 삶을 산 것"이라며 "그가 살아냈던 전라 병영기의 삶에서 우리는 '지금-이곳'에 내던져진 생의 비극성을 생각하게 된다"고 평한다.

한편 신 시인은 경희대 국문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5년 '현대문학'과 2002년 '시와시학'을 통해 등단했다. 김달진문학상을 수상했으며 '환경위기와 생태학적 상상력', '소리의 감옥' 등을 펴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국립나주박물관, 어린이들 위한 '선비, 금강산을 가다'전

국립나주박물관이 새학기를 맞이해 어린이들이 신나게 놀며, 역사도 배울 수 있는 '선비, 금강산을 가다'전(사진)을 6월6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금강산 여행'을 주제로 그림, 영상, 자료 등을 통해 조선시대 선비들의 금강산 여행 모습을 살펴본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평생에 꼭 한 번 가고 싶어했던 곳이 금강산이었다. 금강산을 여행하고 그 아름다움을 담은 그림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겸재 정선과 정수영 등 조선시대 유명한 화가들이 남긴 그림을 선보인다.

또 선조들이 남긴 여행기, 옛 그림 속 금강산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한다. 금강산 민화 병풍 그림 역사, 1930년대 금강산 관광안내첩



과 사진엽서 등 실물 자료(32점)도 함께 전시된다.

환경에 마련한 선비가 고나리밭집에 넣을 짐을 담아보는 게임 체험은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시를 둘러본 후 소감을 적거나 선비복장을 입고 금강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보는 공간 등 다양한 체험도 진행한다. 문의 061-330-78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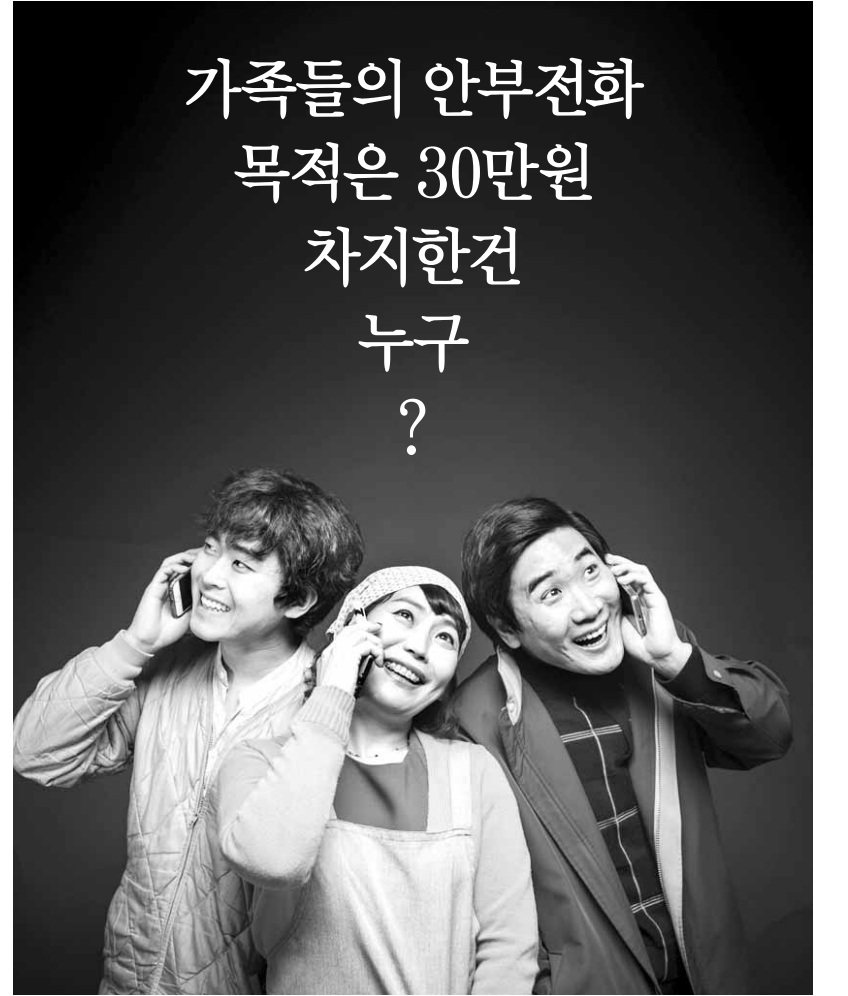
'전우치 4' 배우 공개 모집 광주시립극단

광주광역시립극단이 오는 6월 공연 예정인 야외극 '전우치 4'에 참여할 배우를 공개 모집한다.

춤, 연기, 노래에 재능 있는 경력 및 신인배우를 대상으로 하며,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공개오디션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 문화예술회관 내 극단 연습실에서 개최하며 매일 접수(gjdrama@hanmail.net)로만 가능하다.

2013년부터 광주극단공인무대에서 선보인 야외극 전우치는 화려한 무술과 군무가 어우러진 판타지액션 연극이다.

'전우치 4'는 오는 6월 15일~7월 3일까지 광주극단공인 야외무대에서 공연된다. 문의 062-511-275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족들의 안부전화 목적은 30만원 차지한건 누구?

연극 '30만원의 기적' 22~31일 유·스퀘어 동산아트홀

아버지가 보증을 서는 바람에 빚에 쫓겨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 어느 날 각각의 이유로 딱 '30만원'이 필요해진 이들은 오랜만에 서로의 안부를 묻기 시작한다. 과연 30만원을 손에 넣게 되는 사람은 누굴까.

연극 '30만원의 기적'이 오는 22일부터 31일(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3·7시, 일요일 3시)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열린다. 지역 단체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유·스퀘어문화관과 희망문화협동조합(이사장 임준형)이 공동 기획한 작품이다.

등장인물은 부동산 중개업자 아빠, 고시원에서 글을 쓰는 백수 아들, 빚보증 잘못 선 남편 돈을 갚기 위해 김밥가게에서 일하는 엄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도시가스 연체료를 내야하고,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고, 데이트 비용을 준비해야 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따뜻하고 유쾌한 시선으로 풀어낸 '30만원의 기적'은 '웃픈' 현대인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

오세혁 작가의 희곡으로 박상연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강인영, 이명덕, 황민형, 김주영씨가 출연한다.

티켓 가격 전석 3만원. 고속·시외버스 승차권을 제시하거나 인터넷(www.usquareculture.co.kr)로 예매하면 30% 이상 할인이 가능하다. 문화가 있는 날(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40% 할인해 준다. 문의 062-360-84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천원의 낭만' Ensemble k와 함께하는 봄의 소리

21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슈베르트 '송어' 등 실내악곡

제7회 '행복한 문화충전 천원의 낭만'이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시와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진행하는 이번 공연의 주제는 'Ensemble k와 함께하는 봄의 소리'다.

'Ensemble k'는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전

문 연주자 단체로, 이번 무대에서는 김수연(바이올린), 임지선(비올라), 박효은(첼로), 이정은(더블베이스), 이성은(피아노)씨가 공연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사라사테의 '찌고이네르바이젠', 브루흐의 '비올라를 위한 로망스' 등 악기별 독주곡과 헨델의 '파사칼리아', 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 '송어' 등 우리에게 친숙한 실내악곡을 선보인다.

www.gjasia.org. 문의 062-226-20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